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2021. 11. 2. (화) 14:00 ~ 16:00

장 소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 최

충청남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의정토론회」진행안내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1. 2.(화) 14:00 ~ 16:00
- 장 소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지하 1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신청: 정병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 주 제 :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 참석예정 : 49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 ~ 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4:05 ~ 14:10	05'	개회사, 내빈소개 등	정병기 위원장
< 토 론 회 >			※ 진행: 정병기 위원장
14:10 ~ 14:40	30'	주 제 발 표	서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40 ~ 15:20	40'	지 정 토 론	토론자 전체(각 10분)
15:20 ~ 15:35	15'	종 합 토 론	토론자 상호 간
15:35 ~ 15:55	20'	자 유 토 론 (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5:55 ~ 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정병기 위원장)

목 차

-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1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장 서 정 연
- 전국 최초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팜 29
여주시 장애인지원팀장 엄 기 영
-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35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노 태 현
- 충남 장애인체육선수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방안 47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변 현 수
-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공공의 협력방안 53
천안의료원 재무과장 윤 재 준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 / 정 / 토 / 론 / 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장 서 정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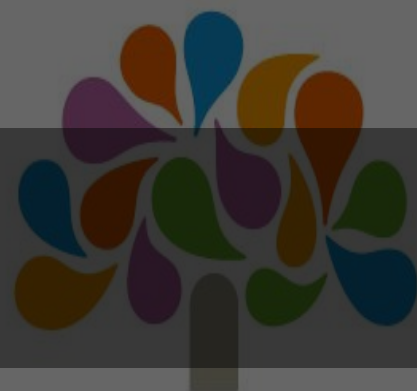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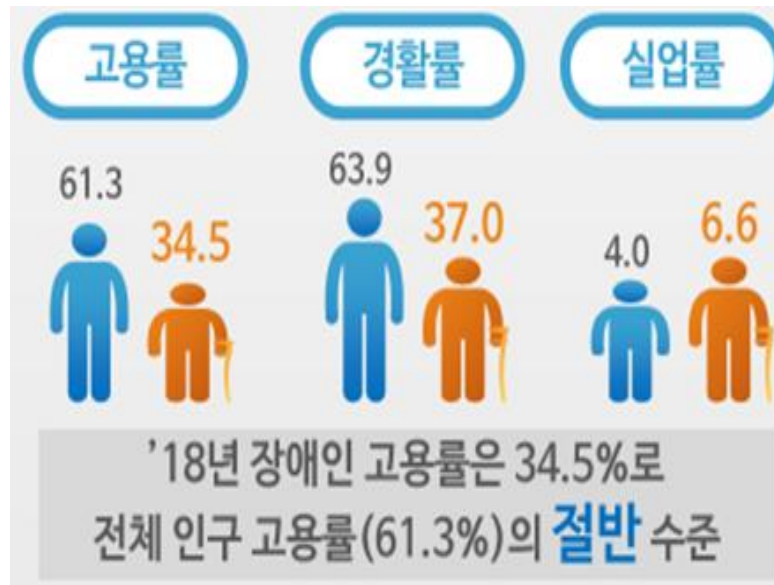
2021. 11. 2

들어가며



행복충만 충청남도

비장애인의 절반수준



장애인 체육 선수,
선수가 되기 전까지, 나와서는...

장애인 선수('18년 등록선수 18,000명, 동호인선수 15,000명)

장애인 실업팀 '19년 기준 23개 종목 84개팀 총 347명

대부분의 선수들이 **실업상태 또는 직장 & 자영업 병행 중**

어떤 배에 태울 것인가?



장애인스포츠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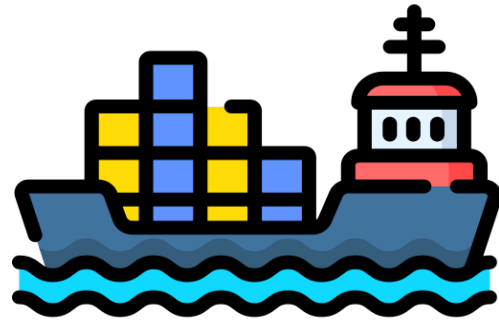
제조업

스마트팜

서비스업



직접고용



장애인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다수 고용!

왜 표준사업장인가?



- 지원금 지원 및 고용 사례 축적 (2002년~)
- 안정된 장애인 근무 환경 조성 (임금, 편의시설)
-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 부과
- 인증표준사업장에 대한 혜택 (모회사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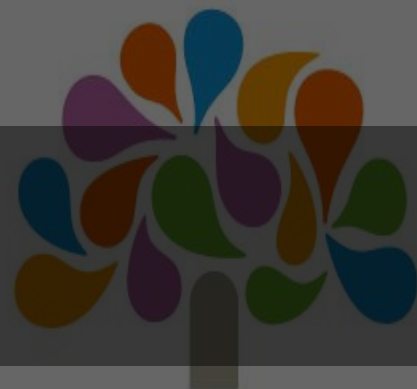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자체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지역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公共)의 책임 이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충만 충청남도

0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2021.12월말 기준)

구 분	표준사업장 업체 수	장애인근로자수
계	473개소	11,115명
(일반) 표준사업장	361개소	6,013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12개소	5,102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아래)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3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혜택



❖ 조세 감면 혜택

- 인증 후 **최초 3년간 법인(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적용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0.6%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

❖ 연계고용을 통한 판로지원 (일반형 표준사업장만 해당)

- 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

기타) **표준사업장 설립 무상지원금 지원**, 신축 표준사업장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수수료 감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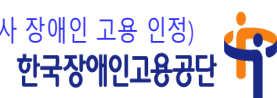
04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형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2008년~)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2019년~)
• 직접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모회사)에서 장애인 고용 목적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 •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산정(단, 경증 남성은 0.5명)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장애인 고용의 공공의 책임 실현 목적

*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하는 실질적 지배사업주일때 인정

단, **둘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하는 경우도 인정**(각 지분비율로 자회사 장애인 고용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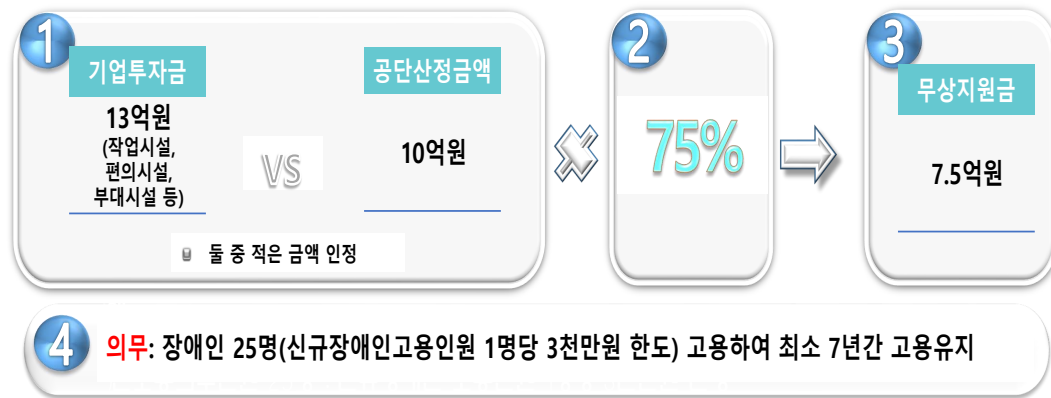
0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무상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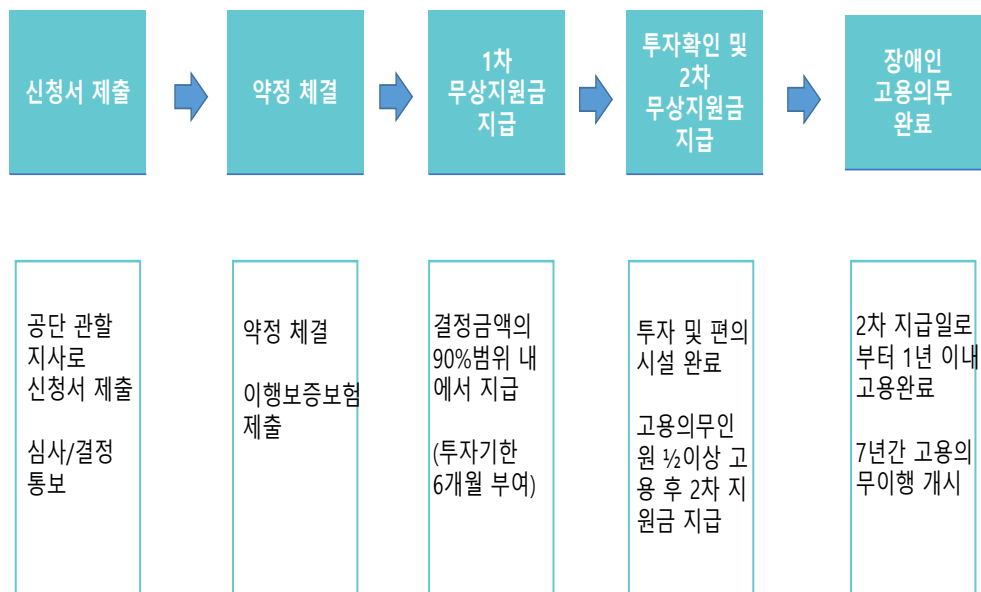
■ 무상지원금 지급 기준 기준

- 설립시 필요한 **투자비용의 4분의 3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무상지원금 지원
- 지원금 용도: 작업장(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제외), 작업장비, 편의시설 설치비, 통근용 승합차 등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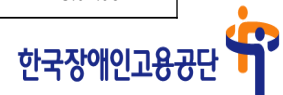
06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급 절차



07 대기업집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20.6.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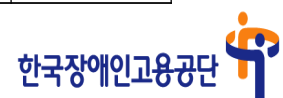
연번	대기업집단	계열사(협약사)	설립(자회사명)	설립기준일
1	삼성(2)	삼성SDS(주)	오픈헨즈(주)	'11.11.16
2		(주)에스원	에스원CRM(주)	'11.04.29
3	SK(7)	(주)SK하이닉스	행복모아(주)	'16.10.12
4		SK이노베이션(주)	행복키움(주)	'19.01.14
5		SK에너지(주)	행복디딤(주)	'19.01.14
6		SK실트론(주)	행복채움(주)	'19.05.02
7		SK머티리얼즈(주)	행복동행(주)	'19.06.20
8		SK텔레콤	행복한울주식회사	'19.08.08
9		SK종합화학(주)	행복모음주식회사	'19.09.26
10	LG(10)	LG디스플레이(주)	(주)나눔누리	'12.04.25
11		LG이노텍(주)	이노위드(주)	'12.05.22
12		(주)LG유플러스	(주)위드유	'13.07.01
13		(주)LG화학	(주)행복누리	'13.04.04
14		LG전자(주)	(주)하누리	'13.02.08



07 대기업집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20.6.30.기준)



연번	대기업집단	계열사(협약사)	설립(자회사명)	설립기준일
15	LG(10)	LG생활건강	(주)밝은누리	'15.08.06
16		LG씨엔에스	(주)행복마루	'16.08.04
17		(주)서브원	(주)드림누리	'17.11.17
18		(주)LG하우시스	(주)그린누리	'18.01.04
19		(주)판토스	한울타리	'18.01.02
20	롯데(4)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주)	(우)엔젤위드	'13.04.11
21		롯데제과(주)	스위트위드(주)	'16.05.09
22		호텔롯데(주)	스마일위드	'19.01.15
23		롯데푸드(주)	푸드위드(주)	'20.01.14
24	포스코(1)	(주)포스코	(주)포스코휴먼스	'08.03.28
25	KT(1)	KT	주식회사 케이티희망지움	'19.02.08
26	효성(1)	효성ITX(주)	행복두드리미(주)	'13.09.05
27	OCI(1)	OCI	오씨아이드림 주식회사	'19.08.08



제철 및 제강업

(주) 포스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포스코휴먼스(상시근로자 665명, 장애인 277명)



포스코 장애인사업장 준공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구택 포스코 회장, 김관용 경북
도지사, 박승호 포항시장(오른쪽부터) 등이 11일 준공된 포스코 자회사 포스위드
의 경북 포항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포스위드는 포스코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포스코 제공

장애인이 주인인 회사!

포스코 자회사 '포스워드' 포항사업장 준공
직원 30% 장애인-3년내 60%로 확대 방침

국가 처음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인 '포스워드' 포함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고, 장애인 직원의 50%는 중증이다. 포스코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사회사 포스워드 통합사업장을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포	스코가 100% 출자한 포스워드는 포스코 및 관계사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등 사무 지원, 통신평의 및 직원 근무복 세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 87명을 포함, 221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포스코는 2012년까지 1년 간 전체 직원 60% (180여명)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방침이다.
---	--

포스코는 2007년 말 포스코이노브 설립했다. 이날 포스코자랑을 공동 설립, 2008년 포스코자랑을 연인적 284만 9천으로 확대하고 성장성, 경쟁력지표 등을 강요한 열대야와도 자문. 경사로,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이철우 노동부 장관, 박승은 국회의원, 장대연철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포스코가 좋은 인건비와 모도 모도 장래가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 되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를 위한 eyes@kimb.c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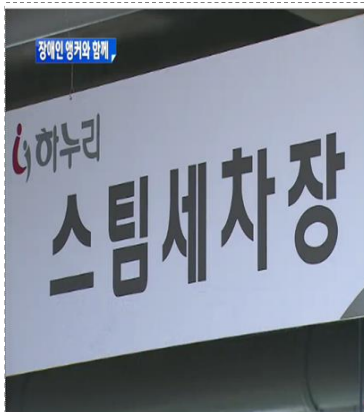


제 조 업

(주) LG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하누리(상시근로자 339명, 장애인 219명)



LG전자 “장애인 위한 일자리 계속 만들것”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평택 디지털파크에 마련

[illegible]

LG전자는 19일 발표한 LG디스플레이에서 진행된 자회사들 중엔만 코스트셰어링 '제약'과 매출이형 가점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주요모회사 10개사, 한양중공업과 포스코 이차전지 사업장 등 4개 사업장, 하위 1차로 제조사인 오션텍 등 주요 관계자들에 테크노 커뮤니를 하고 있다.

장모이 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 여권 이원에게 전한 주요도 20%로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은 하위 1차에 '하위'라는 한 자를 대다 같이 실어 뜻을 같이한다. 이는 '하위'라는 '장모'와 비정형이다. 이 서로 이리 해 내지 않는다고 하거나

되는 것은 회사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LG전자 10대주주들 중으로 전하는 '장모'는 2차 사업장 5개, 하위 1차자료를 계속 전송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on2019년 3월 25일 기자

정부가 설립·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제도다.

‘하누리’는 환경 미화, 스텝 배치, 식기세척, 기숙사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LG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시작으로 향후 서울, 경기, 구미, 경남 창원 등 LG전자 타 사업

장로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직원에 적합한 직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최철호 하누리 대표는 "하누리는 한 기업 아래 장애인과 뜻을 같이하는 의의'라는 '강제'와 '배경'에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좋은 회사로 성장하겠다"라고 말했다.

LG전자 HR부문장 홍호진 전무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자리를 계속 창출해 사회에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이라고 말했다.

2010.08.27 김주현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8 국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 3



게임SW제작업

NHN(주)
(네이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엔비전스(상시근로자 59명, 장애인 28명)



문화저널 21



어둠속의 대화
DIALOGUE IN THE DARK

- **"어둠을 온몸으로 느껴라!!"**
→ 체험전시 '어둠속의 대화'
-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각 이외의 다양한 감각들을 체험
- 문화체험 공간으로 학생, 직장인, 일반인들에게도 자리잡아 성황리에 운영 중
- 시각장애인이 길 안내를 하는 로드마스터 역할 수행
→ **시각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



08 국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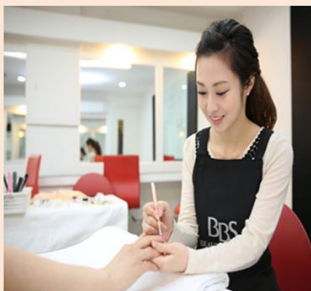
항공업

(주)제주항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모두락(상시근로자 57명, 장애인 51명)

제주항공 직원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영위



Nail Art



Health Keeper



Baristar



09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2018~2022)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확대)

다수의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투자 비율만큼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설립 확대 필요성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 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필요



10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좋은 점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의 경제적 + 비경제적 효과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취업 취약계층인 지역의 다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2. 경제적 효과

- 출자 기관(기업)은 간접고용으로 부담금을 감면, 자회사는 고용장려금(월 인당 30~80만원)을 지급받아 1석 2조의 효과
- 자회사 설립시 최대 20억원의 투자 목적의 무상지원금 지원 (3천만원당 1인 고용, 7년 고용유지)

3. 사회적 책임(CSR)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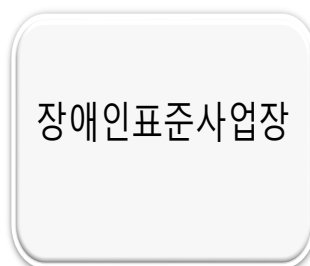
- 사회적 책임 이행(‘최고의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대 지역주민 이미지 제고



11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방법(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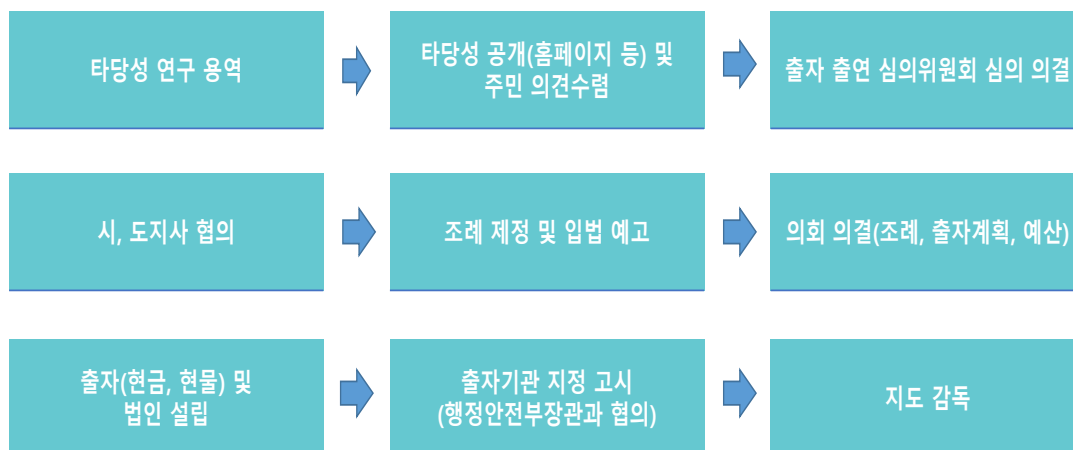
■ 공동출자(현금, 현물) 형태로 영리법인 설립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업종 고려



12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시 지자체 추진절차



-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방재정법

- ◆ 추진 절차에 의해 최소 1년 이상 소요(예상)
- ◆ 지자체 추진 시 조직 및 예산관련 부서 공동추진 필요 (자체 TF팀 구성)
- ◆ **진행과정 중 공단과 설립을 위한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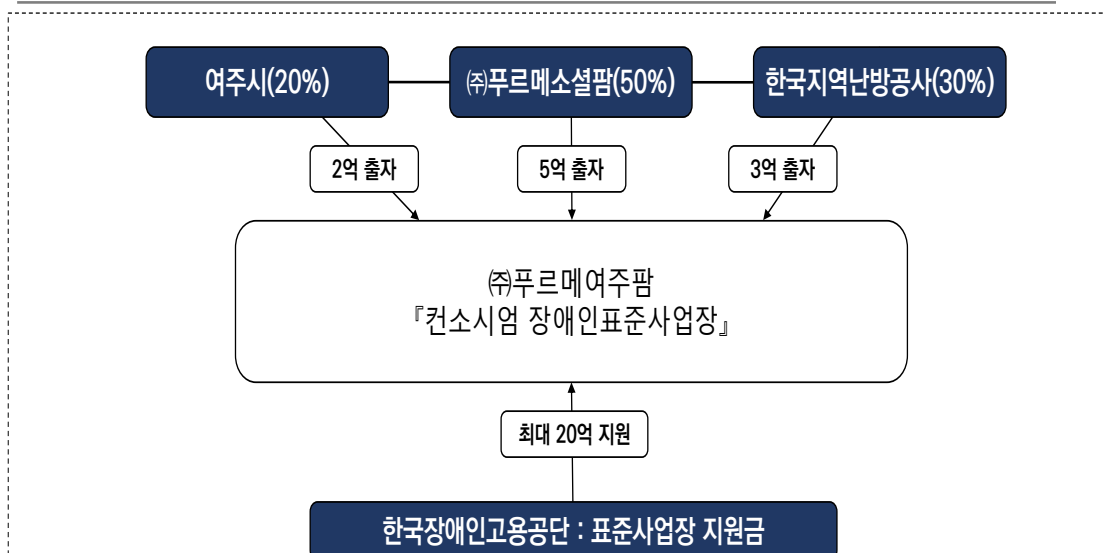
13 공단-여주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식(20.5.19.)



“ 스마트팜(농산물 생산/가공/포장/판매시설, 카페, 체험실습장)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67여명 고용창출 예정”



14 여주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 스마트팜(농산물 생산/가공/포장/판매시설, 카페, 체험실습장)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67여명 고용창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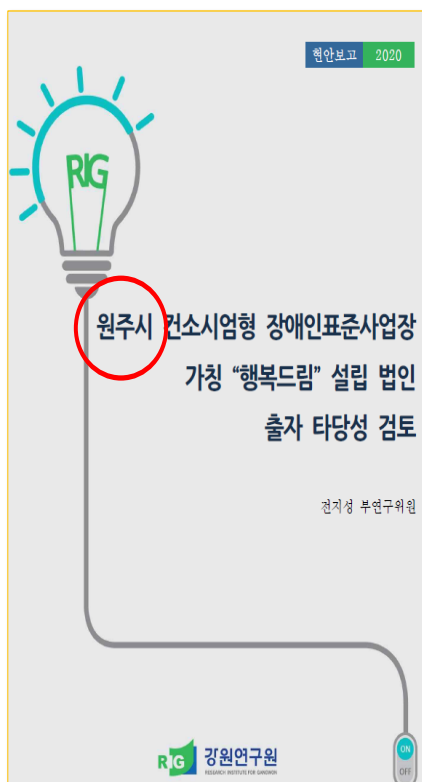


14 (주)푸르메여주팜 세부시설 배치도(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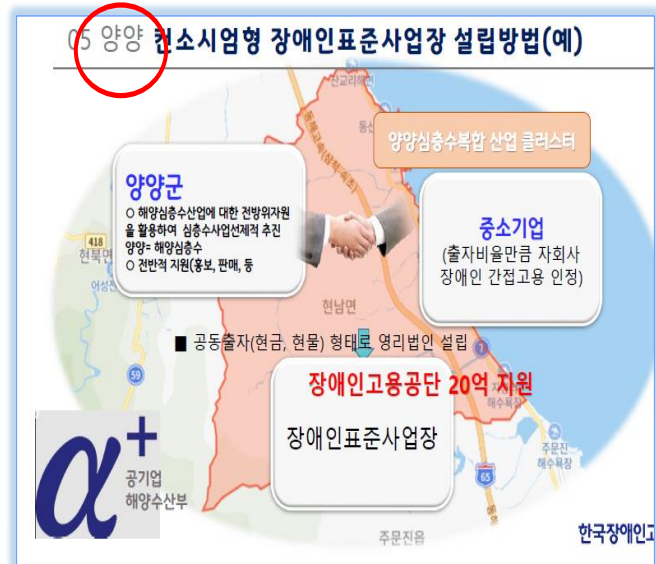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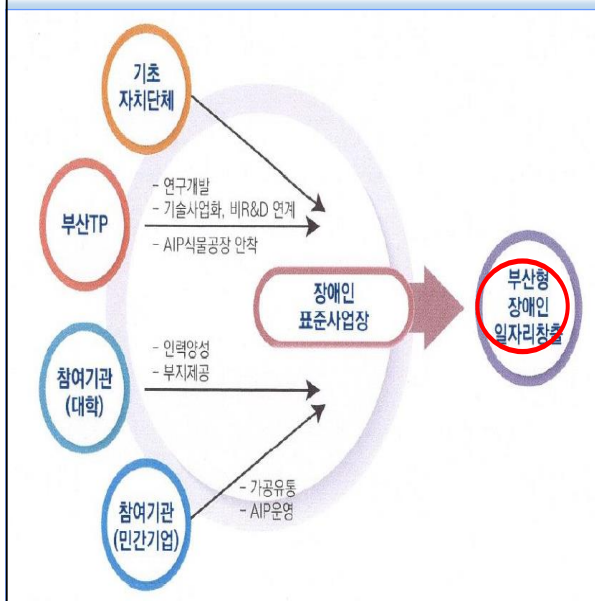


1. 스마트팜 : 4,200㎡(1,300평)
⇒ 토마토, 표고버섯, 엽채류
2. 복합시설 : 330㎡(100평)
⇒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 등
3. 가공시설 : 500㎡(150평)
4. 카페/마켓 : 720㎡(220평)
⇒ 카페, 파머스마켓, 도서관 등
5. 주거동 : 330㎡(100평)
⇒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15 컨소시엄형 사업장 설립 추진 지자체 현황



15 컨소시엄형 사업장 설립 추진 지자체 현황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모색

행복충만 충청남도

15 장애인스포츠탄 운영 사례

현재, 표준사업장 사례는 없으며, 직접 고용을 통해 스포츠탄을 꾸린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

구분	예고****	**솔루션
신분	정규직	
규모	30명 내외	40명 내외
훈련장소	충청북도 체육회 협약 체육관[당구장, 탁구장 등]	
근무시간	4시간	4시간
선수관리	훈련일지 작성 및 보고	
급여	120만원	130만원
복리후생	정규직과동일 - 자녀대학학자금 전액지원, 병원비 지원(연300만원 이내), 계절별 체육복, 장비 지원	
대회지원	메달획득 시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0만원	메달획득 시 금메달 150만원, 은메달 120만원, 동메달 90만원
선수 채용	선수 총원 필요시 충북지사로 요청하며 충북장애인체육회 협조로 선수 발굴 알선	
추진배경	- CEO의 장애인 관심과 의지(ESG경영),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부담금 감면	

15 컨소시엄형으로 장애인 스포츠탄 설립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시사점
중소기업 선정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있으며 스포츠단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업	· 규모가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특히 고용부담금 납부 업체 (공단협 협조 공문 발송)
투자시 유의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체육 시설 필요 (시설 장비 등에 대해 무상지원금 활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순위 고려 필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확보	· 근로장소, 근로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 실체가 있어야 함	· 관리체계 사전 준비, (공단과의 협력, 장애인근로관리 유경험자 배치)
수익 창출	· 고용장려금외로 운영경비 재원 마련 계획	· 참여기업의 지원계획 (부담금 감면액중 일정 비율 지원) · 지역기업의 홍보 스폰서십 등

감사합니다.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심 -

서 정 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장

I.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하면서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적용하게 된 고용의무제의 핵심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들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해서 만일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준이상으로 고용하게 되면 그 초과되는 인원규모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의무고용제를 추진할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연도에 설립되었다.

고용의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당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고용의무사업체의 범위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정부부문도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용부담금의 기초단가를 최저임금수준으로 높여 장애인고용이 더 이상 기업의 선의에만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의무인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일련의 이런 제도적 변화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책임 강화이다. 2020년 공무원 부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의무고용률도 민간보다 높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21년 기준 민간 3.1%, 공공 3.4%). 이 같은 의무고용제 강화 노력에 따라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0년 3.08%(중증 2배수제 적용)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직업적 삶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 더 심각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37.0%)과 고용률(34.9%)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3.0%), 고용률(60.2%)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이며, 전체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은 경증에 비해 두 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경활률:

경증 68.6, 중증 26.3 / 고용률: 경증 64.6, 중증 24.3). 이는 의무고용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기업과 공공부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담금 납부로 면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란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닌 사회 참여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회는 장애인 일자리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특히 다수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 기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 표준사업장 제도이다. 현재 직접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대기업이 간접적 장애인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서고 있으며, 2019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공공형이라 볼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생겨나면서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역에 맞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강구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일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모색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단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측면에서 추진할 경우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도록 한다.

II.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장애인 고용 증대

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등장

규모가 작고 비교적 직무가 단순한 50인 이하의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고용장려금)을 위해서라도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비해 장애인 고용을 꾸준히 늘려갔다. 그러나 이들 기업조차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은 부담스런 문제였으며, 장애인 입장에서도 낮은 임금 수준과 부족한 편의시설은 취업을 꺼리게 하는 요소였다.

2002년 도입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기업이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며, 2013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앞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인증요건을 표준사업장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 아래와 같이 최소 고용인원.비율, 편의시설 구비와 함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장애인고용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아래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및 인증시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시, 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증 표준사업장이 누리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세감면혜택이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업주는 인증 받은 연도를 포함한 3년간 법인(소득)세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감면한도는 기본 1억원+장애인근로자수*2천만원).

다음으로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사 등의 공공기관들은 총구매액의 0.6%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기재부와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1년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입액은 약 5천 5백억원으로 기관의 전체 총구매액 중 구매비율이 0.91%에 이르렀다. 또한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한도 없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급이 그것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자금(작업시설, 장비 등 용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 3천만원당 1명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해 7년간 고용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10억원(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무상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수만큼(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단가 적용, 중증여성장애인은 월 80만원 단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어 표준사업장들은 사업 운영비 등의 용도로 집행하고 있다.

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유형 -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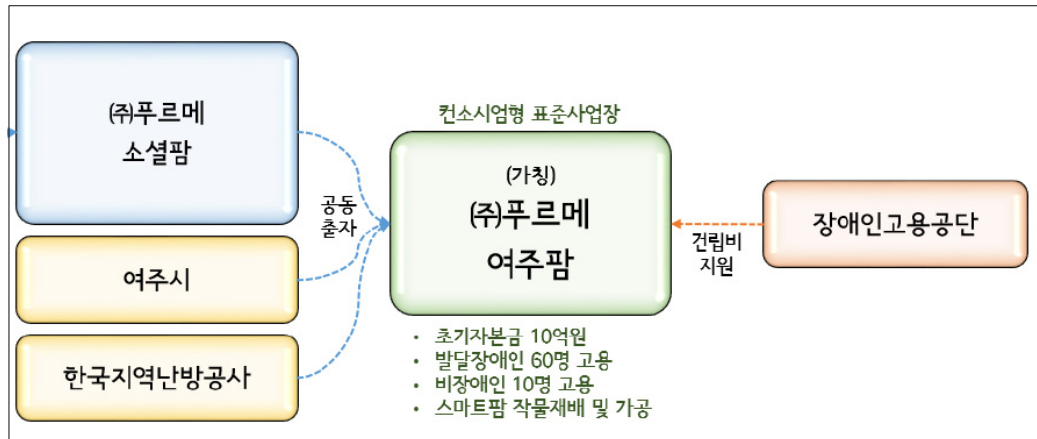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었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 계열사는 업종의 특성상 자체적인 직접 고용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일찍부터 ‘특례 자회사’제도를 만들어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 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촉진해왔으며, 그 결과 일본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이 그보다 인원수가 적은 기업들보다 높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8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출범하여 모기업이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위한 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회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삼성SDI,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80억원 감면)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 경영(ESG 경영)의 기업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장애인들 역시 이로 인해 통근 버스이용 등 대기업 수준의 질 높은 복리후생과 더불어 안정된 직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유형 - 컨소시엄형(장애인표준사업장)

그동안 주로 민간부문에 요구되었던 장애인고용에 대한 요구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책무로 넘어오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분야 모델로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모델이 2019년 마련되었다.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공공부문이 지역의 중소기업들(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투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공공부문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이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설립에 필요한 무상지원금 한도도 20억원으로 늘려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 중소기업의 부담도 한층 덜게 되었다. 설립과 관련해 1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인 여주시의 (주)푸르메 여주팍의 출자 형태는 아래 도표와 같다.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주) 푸르메여주팍의 출자 현황>



(주)푸르메 여주팍은 2021년 공단으로부터 10억원의 무상지원금을 수령하여 전체 계획된 투자 중 일부(스마트 팍)를 진행하였으며, 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고용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춰 '21. 2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주)푸르메 여주팍은 지역의 시민.기업.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이 협력해서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립하고자

마.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이용한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시 고려 사항

앞서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고용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는 장애인 취업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직업적 편견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장애인 고용이다. 시간, 장소를 정한 노동의 제공 후 임금 수령이란 전통적 개념의 근로자성 측면에서 이들 분야에서의 근로자성을 파악하기 힘든 탓이다. 비장애인도 그럴진데 장애인은 더욱 이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직업 선택의 폭이 작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회적 노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몇 년 새에 사회적 힘을 받으면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다. 특히 체육 분야가 그렇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 영역을 다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업과는 떨어져 있지만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높이고 증가하는 고용부담금의 압박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에 눈을 뜬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는 장애인 체육선수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있지만 만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형태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이 일어난다면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모회사는 모회사대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게 되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에 있어 실효적인 기제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의 경우에서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많은 지자체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고려하지만 쉽게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2인 3각 경기의 장애와 마찬가지다. 자생적 필요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은 부가 설명이 필요치 않다. 목적 사업에 있어 기업의 관련 분야가 아닐 경우는 결정이 더욱 쉽지 않다. 공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지역내 부담금 납부 기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한가지 컨소시엄형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자생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초기 투자비용은 공단의 무상지원금으로 일부 해결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하겠지만 모자라는 운영비 마련이 문제이다. 이 점에서는 후원과 고정 매출처가 중요할 것이다. 여주시의 푸르메여주팍의 경우는 지역의 sk 하이닉스가 이런 면에서 여러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산 등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구상하는 다른 지자체도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업종 선택과 매출계획 수립을 고민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점에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기업들로부터 기업 홍보 대가의 스폰서십을 받는다면, 공동 출자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지원(고용감면액 비례)을 받는다면 하는 일이다.

아직까지 장애인 스포츠단을 표준사업장으로 설립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 예를 들 수는 없지만 표준사업장의 제도적 이점인 모회사 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투자목적의 무상지원금 지원을 고려하고 스포츠 마케팅(스폰서십)을 활용한다면 충남도의 장애인 스포츠단은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나오며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지역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지자체가 직접 관여한다는 점, 그리고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나 요즘같이 지역의 공동화(空洞化) 문제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지역민들이 발벗고 나서는 일은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던 영리기업에의 출자행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주)포스코 휴먼스를 포스코 그룹이 출범시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례 없던 일에 대한 실패의 부담은 물론이고, 선불리 진행했을 경우 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결국 국가를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을 언제까지나 부담금 납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단의 도움으로 제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의 명예를 차지했다. 현재 (주)포스코휴먼스는 초기의 작업복 세탁 직무를 넘어, 제과 제빵 및 기타 모회사의 위탁 업무까지 장애인의 직무 영역을 넓혀 2021년 6월 기준 장애인 296명(중증 142명)을 고용하고 있다. 포스코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경영진의 뜻이 확고한 것에 기인한다. 요즘도 포스코 회장이 새로 부임되면 제일 먼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주)포스코 휴먼스부터 먼저 찾는다고 포스코 관계자는 전한다. 이런 장애인고용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속에서 (주)포스코휴먼스는 사무동 건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 올해의 '더 편한 일터'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현재 공단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2호 사업장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가 강원 복지TV와 협력하여 현재 공단에 무상지원금 신청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경기 화성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등의 지자체가 공단과 사업 추진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기재부도 표준사업장 지원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 판단해 지원금 예산도 매년 증액 중이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도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은 사업장 출범이 거듭될수록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 / 정 / 토 / 론 / 회

전국 최초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팍

여주시 장애인지원팀장 엄 기 영



전국 최초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푸르메여주팍

엄 기 영

여주시 장애인지원팀장

I 여주시 출자기관 “푸르메여주팍” 설립

1. 설립근거

가.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0분의 10 미만으로 설립 : 근거없음

※ 출자기관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 주식 전부처분 및 인수(제24조)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출자의 방법 : 동시 출자(○), 기존 법인에 출자(×)

2. 설립절차(2021년 기준)

단 계	내 용	주 체	소 요 기 간
			15~17개월
1. 설립방침 결정	가. 설립 여부 결정 -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사업 여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 나. 조직의 형태 결정(출자 또는 출연기관) 다. 사전협의를 마련 - 설립개요, 사업범위, 조직과 인력, 출자·출연 계획, 기대효과 등	지자체	1개월
2. 사전협의를 (1차협의)	가. 타당성검토 전 협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생략 - 5년간 출자금 5억원(시도), 3억(시군구) 출연금 2억원(시도), 1억원(시군구) 나. 타당성검토 절차간소화 여부 판단 - 3년 이내 해산하는 한시조직 등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3. 설립계획 수립	가. 설립계획 수립(자체 또는 용역) - 설립개요, 사업범위, 사업수지 등 9개 항목 포함	지자체	1~3개월
4. 타당성 검토	가. 타당성 예비검토, 약정체결 - 지방출자법 시행령 제8조의2(출자출연 기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2020. 6. 4. 시행 ⇒ 지방연구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나. 타당성검토 수행	지자체-전문기관	1개월 6개월
5. 결과 공개 및 심의	가.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15일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나. 공개 종료 후 지자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지자체	1개월
6. 설립협의 (2차협의)	가. 지방자치단체 설립 협의 요청 및 자료 제출 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면 협의생략	행안부-시도 시도-시군구	1개월
7. 설립	가. 협의결과 및 설립계획서 공개 나. 조례 및 정관 제정, 출자심의(의회) 다. 임원 공모 및 임명 라. 설립 등기 ※ 출연기관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필요 마. 지정고시 신청	지자체 지자체-행안부	2개월 1개월

3. 푸르메여주팍 설립 진행과정

- 2020.02.14. 출자기관, 푸르메여주팍 설립 계획 수립
- 2020.04.16. 푸르메여주팍 설립 경기도 (1차)협약 완료
- 2020.05.19. 출자기관 설립 협약식(여주시 등 5개 기관)
- 2020.07.30. 푸르메여주팍 설립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 2020.08.20.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심의
- 2020.09.04.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사의결
- 2020.09.09. 여주시의회 임시회 출자계획안 심의
- 2020.09.25. 푸르메여주팍 법인설립
- 2020.10.29. 푸르메여주팍 착공식
- 2020.12.01. 발달장애 청년 16명 고용계약(1명 퇴사, 2명 푸르메소셜팍 이직)
- 2021. 5월 11명 / 6월 8명 / 8월 4명 고용계약

II 푸르메여주팍 현황

- 위 치 : 여주시 오학동 47번지 일원
- 면 적 : 11,792m²
- 설립형태 : 여주시 출자기관
- 자 본 금 : 1,000백만원<市 200, 푸르메소셜팍 500, 한국지역난방공사 300>
- 고용인원 : 38명(장애인 36명, 비장애인 2명)
- 주요내용 : 스마트팍 작물재배(토마토, 표고버섯) 및 1차 가공, 포장 및 판매,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 중증장애인 영농훈련
- 생산물 판매 : SK하이닉스 및 연계 업체에서 생산 농산물 구매 협조



III 주요성과

- 양질(최저임금 이상+안정적 고용)의 일자리 창출
 -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대부분 기간제로 저임금이나 푸르메여주팜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음.
- 저비용 고효율(매년 6억 vs 1회 2억) 장애인 일자리 창출
 - 푸르메여주팜과 유사한 보호작업장의 경우 매년 약 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반면, 푸르메여주팜은 단 1회 2억 원의 출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여주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향상(14.4명 ↑)
 - 21.7.20 개정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표준사업장 설치시 투자 비율만큼 고용 인원으로 인정 ※36명의 20%(여주시 투자비율)인 7.2명(중증일 경우 2배 14.4명)

IV 향후계획

- 2023년까지 최대 70명(장애인 60명, 비장애인 10명)으로 고용 확대
 - 지역 농산물 가공·유통업 등 신사업 확장으로 장애인 직원을 2021년 36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고용 확대 예정
- 안정적 직업에 주거지원으로 탈시설 성공모델 제시
 - 직원 36명중 7명은 시설장애인으로 체험험 및 자립지원주택 같은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탈시설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
- (영유아, 장애인, 치매노인 등) 치유농업으로 변화 발전
 - 농산물을 생산·가공·판매(유통)을 넘어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임.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 / 정 / 토 / 론 / 회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노 태 현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노 태 현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I. 검토 배경

-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이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표준사업장 형태의 「장애인 스포츠단」에 출자하여 운영재원으로 활용,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발굴·육성하고 장애인 선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II. 표준사업장 유형

- (기준) ①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명 이상, ②최저임금(8,720원) 이상 지급, ③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④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충족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유형) ①일반형 ②자회사형(기업) ③사회적경제기업형 ④컨소시엄형 등 4가지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형태는 컨소시엄형* 임.

III. 컨소시엄 검토

① 추진방법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투자(출자)를 통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형태
- 예) 충청남도 or 공공기관 + 중소기업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여주시 (주)푸르메여주팜(참고1)

② 운영방안 [시뮬레이션]

- (주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 (예산) 약 18억원(운영비 3, 인건비 15)
- (인원) 50명(감독 5, 주무 3, 경기보조 2, 선수 40)
- (종목) 5종목(골볼, 보치아, 볼링, 육상, 탁구)

< 선수단 구성 인건비(안) >

구 분		인 원	평균연봉	총소요액	비 고
합 계		50		1,508,000	
단 장					장애인체육회 운영
골 볼	소 계	11		328,000	
	감 독	1	40,000	40,000	
	주 무	2	24,000	48,000	
	선 수	8	30,000	240,000	
보치아	소 계	9		250,000	
	감 독	1	40,000	40,000	
	주 무	1	24,000	24,000	
	경기보조	2	18,000	36,000	
	선 수	5	30,000	150,000	
볼 링	소 계	10		310,000	
	감 독	1	40,000	40,000	
	선 수	9	30,000	270,000	
육 상	소 계	10		310,000	
	감 독	1	40,000	40,000	
	선 수	9	30,000	270,000	
탁 구	소 계	10		310,000	
	감 독	1	40,000	40,000	
	선 수	9	30,000	270,000	

※ 종목은 현 상황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실제 설립시는 변동 가

IV. 재원마련

★ 인건비, 운영비등 약 18억원

- ① 道장애인체육회 2개 실업팀 및 우수선수 인건비: 870백만원
 - 00팀(9명, 315백만원), 00팀(11명, 332백만원), 우수선수(32명, 223백만원)
- ②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229백만원
 - 00의료원: 상시근로자 371명 / 의무고용 12명 중 4명 고용 / 고용부담금 63백만원
 - 00의료원: 상시근로자 313명 / 의무고용 10명 중 7명 고용 / 고용부담금 25백만원
 - 00의료원: 상시근로자 359명 / 의무고용 12명 중 6명 고용 / 고용부담금 56백만원
 - 00의료원: 상시근로자 510명 / 의무고용 17명 중 10명 고용 / 고용부담금 85백만원
- ③ 도산하 재단법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72백만원
 - 충남00(6명, 14백만원), 00문화연구원(3명, 14백만원), 00진흥원(2명, 44백만원)
- ④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약 6억원

V. 표준사업장 운영시 장·단점

① [장점] 전국최초 장애인스포츠단을 표준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모델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는 있으나,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 ➡ 우리 道가 장애인스포츠에 대해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道 위상 제고

② [단점] 컨소시엄에 참여할 중소기업 찾기가 어려움

- 중소기업중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고용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 ①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명 이상 ②최저임금(8,720원) 이상 지급 ③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④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충족 등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나
 -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찾기 어려움.
- ➡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선수단만을 운영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대상 아님.

Ⅵ. 종합의견

- (대전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의무를 법률에 반영한 것
 -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표준사업장 형태의 「장애인스포츠단」에 출자하여 운영재원으로 활용, 장애인선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 ▶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
- (현실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필수요건이므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설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우선, 도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기관 등에서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 및 법률에 부합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해야할 상황으로 판단

< 설립절차 >

- ①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참여기업 모집 및 확정(6개월)
- ② 관련 부서 검토 및 협의(지방 공공기관 주무부서, 조직·예산부서 등)
- ③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3개월)**
- ④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1개월)
- 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개월)
- ⑥ 관련 조례 입법예고 및 제정(3개월)
- ⑦ 조례, 출자계획, 예산 등 의회 심의·의결(3개월)
- ⑧ 출자 및 법인 설립, 출자기관 지정 고시(3개월)
- ⑨ 정부지원금(무상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3개월)

붙임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붙임 2 여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사례

□ 설립 개요

- (법 인 명) (주)푸르메여주팜('20.9.25.설립)
- (설립형태) 여주시-공공기관-법인이 공동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자 본 금) 10억원(여주시 2, 한국지역난방공사 3, 푸르메재단 5)
- (정부지원) 최대 20억원 + 고용장려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 분	지 원 액	지 원 내 용
무상지원금	최대 20억원	▪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작업·부대·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비용, 출·퇴근버스 구입 등(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 제외)
고용장려금	매월 최대 80만원	▪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 지원(男60만원, 女80만원)

- (고용인원) 70명(장애인* 60명, 비장애인 10명) * '21년 30명, '23년까지 60명
- (주요사업) 스마트팜 작물재배(토마토, 엽채류, 표고버섯), 중증장애인 영농 훈련, 생산물 1차 가공 및 포장·판매* 및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 등
 - * SK하이닉스에서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전량 구매 예정
- (운영방법) 여주시는 출자법인 설립·운영 참여(이사회 참여, 필요시 공무원 파견 등), 출자한도 규정(회사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 등

□ 설립 절차(약 2년 정도 소요)

- ①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참여기업 모집 및 확정(6개월)
- ② 관련 부서 검토 및 협의(지방 공공기관 주무부서, 조직·예산부서 등)
- ③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3개월)
- ④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1개월)
- 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개월)
- ⑥ 관련 조례 입법예고 및 제정(3개월)
- ⑦ 조례, 출자계획, 예산 등 의회 심의·의결(3개월)
- ⑧ 출자 및 법인 설립, 출자기관 지정 고시(3개월)
- ⑨ 정부지원금(무상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3개월)

붙임 3 충청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소관부서	정/현원	장애인고용수	
						의무	현황
합 계						73	44
출 자 출 연	공기업	충남개발공사	홍성군	예산담당관	90/82	3	2
	의료원	천안의료원	천안시	보건정책과	403/365	12	4
		공주의료원	공주시	보건정책과	340/317	10	7
		서산의료원	서산시	보건정책과	379/351	12	6
		홍성의료원	홍성군	보건정책과	558/524	17	10
	재단 법인	충남연구원	공주시	정책기획관	113/124	5	6
		인재육성재단	홍성군	교육법무담당관	40/37	50인 미만으로 제외	
		평생교육진흥원	홍성군	교육법무담당관	21/17	"	
		사회서비스원	예산군	사회복지과	38/28	"	
		일자리진흥원	예산군	일자리노동정책과	31/31	"	
		신용보증재단	아산시	소상공기업과	93/84	3	3
		경제진흥원	아산시	소상공기업과	29/26	50인 미만으로 제외	
		과학기술진흥원	아산시	미래성장과	17/1	"	
		테크노파크	천안시	산업육성과	176/163	6	4
		역사문화연구원	공주시	문화정책과	59/40	3	2
		문화재단	예산군	문화정책과	31/28	50인 미만으로 제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시	문화정책과	41/35	"	
		백제문화재단	부여군	관광진흥과	13/11	"	
		여성정책개발원	공주시	여성가족정책관	26/26	"	
		청소년진흥원	천안시	여성가족정책관	69/61	2	0
기 타	사단법인	교통연수원	공주시	교통정책과	18/18	50인 미만으로 제외	
	체육 단체	충남체육회	예산군	체육진흥과	26/26	"	
		장애인체육회	예산군	체육진흥과	13/10	"	

붙임 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등 관련 제도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

유 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4%	3.6%	3.6%	3.8%
	비공무원	3.4%	3.6%	3.6%	3.8%
공 공 기 관		3.4%	3.6%	3.6%	3.8%
민 간 기 업		3.1%	3.1%	3.1%	3.1%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요(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만 부과)

-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내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과
- (대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산식)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고용인원 없음
2021년 적용 (2022년 신고)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개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하여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 감면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시설)

붙임 5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2.)

시 도 별		
구 분	'20년도	순 위
서울특별시	2.75%	15위
부산광역시	3.46%	5위
대구광역시	3.55%	3위
인천광역시	3.34%	7위
광주광역시	3.51%	4위
대전광역시	3.23%	8위
울산광역시	2.55%	17위
세 종 시	2.56%	16위
경 기 도	2.82%	12위
강 원 도	3.4%	6위
충청남도	2.9%	11위
충청북도	2.81%	13위
전라북도	3.9%	1위
전라남도	2.77%	14위
경상북도	2.97%	10위
경상남도	3.07%	9위
제 주 도	3.85%	2위

충남도 시군별		
구 분	'20년도	순 위
천안시	2.83%	8위
공주시	2.11%	14위
보령시	3.95%	4위
아산시	2.79%	9위
서산시	2.51%	13위
논산시	2.54%	12위
계룡시	1.21%	15위
당진시	2.72%	10위
금산군	4.77%	2위
부여군	10.38%	1위
서천군	2.67%	11위
청양군	4.64%	3위
홍성군	3.3%	7위
예산군	3.4%	6위
태안군	3.72%	5위

붙임 6
충남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목록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21.3.)

연번	인증연도	사업체명	업종	비고
1	2013	(주)서현인터내셔널	제조업(조명기기)	일반
2	2013	대성산업	세탁업	일반
3	2015	(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	제조업(복사용지 등), 서비스업(청소용역 등)	일반
4	2016	부국에프앤씨	제조업(떡류)	일반
5	2016	오존	제조업(칫솔 등)	일반
6	2016	동양포장	제조업(종이박스 등)	일반
7	2018	(주)광진산업	제조업(위생용지 등)	일반
8	2018	(주)코스팜	제조업(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9	2018	한국엠씨(주)	제조업(자동차부품)	일반
10	2019	(주)아성기업	제조업(마스크), 도소매업(기계장비 등)	일반
11	2020	(사)두리장애인복지회	서비스업(소독, 방역, 청소)	일반
12	2020	(주)자우버	제조업(렌즈클리너 등)	일반
13	2020	농업회사법인 하늘땅(주)	제조업(농산물)	일반
14	2020	해오름(주)	제조업(화장지 등), 서비스업(불용품수거 등)	일반
15	2020	(주)해담솔	제조업(조미김)	일반
16	2020	(합)대한상사해피크린	세탁업	일반
17	2013	(주)드림앤철클린지	서비스업(청소용역, 여행상담)	자회사
18	2015	(주)그린산업	세탁업	자회사
19	2015	(주)나누리	제조업(자동차 모터부품 등)	자회사
20	2016	(주)현테크	제조업(자동차부품)	자회사
21	2019	(주)행복한세상을만드는사람들	제조업(화장지)	자회사
22	2019	두레(주)	서비스업(세탁) 등	자회사
23	2019	(주)브레인엠알오	제조업(복사용지 등)	사회적 경제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 / 정 / 토 / 론 / 회

충남 장애인체육선수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방안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변 현 수



충남 장애인체육선수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방안

변 현 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1.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의 필요성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묻는 첫 인사는 “뭐하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이 질문에 부담없이 답변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많지 않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고 장애수용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일자리를 통해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로 본 고용률을 보면 전체 고용률 인구 60.2%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34.9%, 그 격차는 25.3%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산업을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전체 비율에 0.9%로 취업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체육 관련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 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2018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2019	2,526,201	941,136	881,890	59,247	1,585,065	37.3	6.3	34.9
	2020	2,562,873	949,047	893,392	55,654	1,613,826	37.0	5.9	34.9
	증감	36,672	7,911	11,502	-3,593	28,761	-0.3	-0.4	0.0
전체 인구	2018	44,141,000	28,184,000	27,064,000	1,121,000	15,956,000	63.8	4.0	61.3
	2019	44,160,000	28,468,000	27,322,000	1,145,000	15,992,000	64.0	4.0	61.5
	2020	44,756,000	28,209,000	26,930,000	1,278,000	16,548,000	63.0	4.5	60.2
	증감	296,000	-259,000	-392,000	133,000	556,000	-1.0	0.5	-1.3

※출처 :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산업>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		전체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93,392		26,930,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12,597	12.6	1,564,000	5.8
제조업	141,027	15.8	4,377,000	16.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78	0.3	72,000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894	0.1	419,000	0.6
건설업	63,062	7.1	1,979,000	7.3
도매 및 소매업	76,740	8.6	3,520,000	13.1
운수 및 창고업	54,432	6.1	1,466,000	5.4
숙박 및 음식점업	44,755	5.0	2,136,000	7.9
정보통신업	13,268	1.5	864,000	3.2
금융 및 보험업	11,862	1.3	781,000	2.9
부동산업	26,264	2.9	520,000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956	2.1	1,151,000	4.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2,743	5.9	1,311,000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403	10.0	1,089,000	4.0
교육 서비스업	28,557	3.2	1,814,000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7,714	10.9	2,332,000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230	0.9	511,000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3,116	4.8	1,182,000	4.4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6,795	0.8	114,000	0.4

※출처 : 202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이 재활에서 체육의 영역으로 이관 되면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창단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자료에 따르면(2020.7.기준) 공공기관 10개, 지자체 20개, 시도장애인체육회 54개로 총84개, 322명이 고용되었고, 민간기업은 6개, 24명의 선수들이 고용되어 장애인체육선수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팀 창단은 2012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창단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감면과 장애인 선수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기업 고용을 통한 급여성 선수가 증가되고 있어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유행처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무고용부담금 감면을 통한 기업고용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임금이(60~90만원) 낮아 운동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하고, 개인적인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기업과 장애인선수에게 윈윈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될 수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기업의 낮은 임금을 통한 고용형태를 추구하는 기업의 인식이 장애인선수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만들 수 있다. 이에 새로운 기업고용 형태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장애인 스포츠 표준사업장(가칭)으로 전문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 선수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현황과 대안

모든 운동선수는 급여를 받으며 훈련하는 실업선수를 희망한다. 운동선수에게 희망을 주는 충청남도 실업팀은 장애인 실업팀 7종목에 33명이 있고, 비장애인 실업팀 38종목에 297명의 선수가 선택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충청남도 및 시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현황>

구분	장애인선수(명)	비고
계	33	
보치아(뇌병변장애)	5	충청남도
골 볼(시각장애)	8	충청남도
태권도(청각장애)	2	충청남도
좌식배구(지체장애)	9	천안시청
휠체어펜싱, 역도, 볼링(지체·지적장애)	9	홍성군청

<충청남도 및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구분	선수(명)	비고
계	297	
5개 종목(사격, 펜싱, 외 3)	32	충청남도체육회
6개 종목(육상, 레슬링 외 4)	61	충청남도
27개 종목(육상 외)	204	15개 시군

실업선수들은 선수들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연봉의 차이에 따라 타 시도로 이적하게 되고 그것이 실업선수들의 세계이다. 장애인체육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뛰었던 대한민국 첫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 2020년 도쿄 패럴림픽 탁구 동메달 남기원 선수 등 수많은 엘리트 선수들도 직장을 제공하는 타 시도로 이적했다. 충청남도 장애인 실업팀 창단 연혁을 보면 2013년 2개, 2019년 2개, 2020년(홍성 3개)가 설립되었지만, 스포츠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업팀 창단이 도청과 시·군에서 충남 전체 체육선수들에게 실업팀을 제공한다는 것은 예산과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대안이 될 것이다.

3.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은 무엇보다 장애인선수에게 체계적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된다. 또한 팀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는 직장장애인체육 진흥이나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스포츠계에서는 종목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장애인스포츠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발제자의 원고에서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포스코휴먼스의 출범 준비 시, 전례 없던 일에 대한 실패 부담에서,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의 명예와 2022년 ‘더 편한 일터’의 수상까지, 확고한 경영진의 뜻이 있었다고 전해 졌다.

또한 곧 있으면, 제2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으로 출범을 앞둔 강원도 원주시와 강원복지TV가 협력한 사업장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체육선수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주)포스코휴먼스가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했던, 제1호의 결과의 행복과 자부심처럼, 체육 분야에서도 충청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설립 방안 모색

의 / 정 / 토 / 론 / 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공공의 협력방안

천안의료원 재무과장 윤 재 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공공의 협력방안

윤 재 준
천안의료원 재무과장

1. 공공의 부분에서 장애인의무고용 정도는?

장애인의무고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분은 상시근로자의 3.4% 민간은 3.1%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의무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고용비용을 지키지 못해서 이 과태료성의 금액을 매년 납부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도 242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민간보다 나은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적으로 2.9%정도를 의무고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충남 4개의료원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천안 의료원	고용율	12.5%	-%	54.5%	81.8%	33.0%	33.3%
	의무고용인원	8명	9명	11명	11명	12명	12명
	고용인원	1명	-명	6명	9명	4명	4명
공주 의료원	고용율	100%	75%	66.6%	54.5%	72.7%	100%
	의무고용인원	7명	8명	9명	11명	11명	12명
	고용인원	7명	6명	6명	6명	8명	13명
서산 의료원	고용율	75%	55.5%	66.6%	80%	50%	92.3%
	의무고용인원	8명	9명	9명	10명	12명	13명
	고용인원	6명	5명	6명	8명	6명	12명
홍성 의료원	고용율	75%	76.9%	64.2%	60%	62.5%	77.7%
	의무고용인원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8명
	고용인원	9명	10명	9명	9명	10명	14명

2. 장애인 일자리 구조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60만(충남 13.3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노동이 많으며 대학을 나와도 수준 높은 직무에 적용되지 않고 대졸 수준에 못미치는 일이 주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의 60%정도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단순 직무, 어렵지 않은 직무로 많이 채용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실업율은 더 높으며 실업률과 이직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급여수준 마저도 약 50 ~ 70%정도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장애인구의 37%밖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 장애인의 1/2 정도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는 경제활동이 아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생각됩니다. 특히 공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채용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입니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13곳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4800만원의 부담금을 했습니다(국감, 2021).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종사자의 80%이상이 자격을 요하는 직군이며, 60%이상이 3교대 근무형태로 정적인 업무보다는 활동적인 업무로 업무강도도 강한 편에 속해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 의료기관입니다. 이직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사무, 업무보조, 전화상담, 안내, 발열체크 등 비자격자 위주로 채용하는 편인데 이는 전체 정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하는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현실을 핑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의 경우에도 1년 평균 약 41백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충남 4개 의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귀속	2019년 귀속	2018년 귀속	2017년 귀속
천안의료원	61,861(4/12)	11,528(9/12)	63,217(6/11)	138,364(0/9)
공주의료원	25,095(6/12)	26,430(8/10)	10,999(6/9)	14,965(6/8)
서산의료원	21,791(6/12)	41,878(8/10)	34,579(6/9)	29,709(5/9)
홍성의료원	56,927(10/16)	85,126(9/15)	52,340(9/14)	37,019(10/13)

4.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위한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

현재 충남 4개 의료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인원이 43명(법적기준 55명)에 연평균 4천만원정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청소용역)과 연계고용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은 직접적인 채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에 국한되겠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여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일부 업체는 국민인권위에 권고 조치까지 받는 업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고용 안정, 최저임금 보장, 근무환경, 중증장애인, 장애인의 고령화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드는 비용을 추계하면 실질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기업 정도만 추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몇억이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충남형 장애인 스포츠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주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기업들이 함께 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지만 충청남도에서 고용한 형태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국가대표 선수로 대회도 출전하는 등 개인, 지자체, 국가 모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스포츠단이 설립되면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취업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단기적 투자에 따른 손실비용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기업이미지 상승 등을 위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애인고용 모델로 ‘충남형 스포츠단’이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